

# 전남 찾는 피서객에 어촌특화음식 선보인다

전국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 어촌과 청년세프가 만나 피서객들을 상대로 특화음식을 선보인다.

전남도는 25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남 어촌을 찾는 전국 각지의 피서객들에게 싱싱한 제철 수산물로 만든 어촌 특화음식을 개발해 27일과 8월 2일 해남, 함평, 보성 등의 주요 해수욕장과 인근 어촌에서 시식회 '남어진담(南魚珍談)'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촌특화음식은 한국조리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소속으로, 각종 세계 요리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청년 셰프들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27일 오전에는 불꽃놀이축제가 열리는 해남 송호해수욕장에서 송호어촌계의 특

전남도·어촌특화센터, 청년세프 참여 '남어진담' 개최

27일 해남·함평 해수욕장, 다음달 2일 보성 울포서

산물인 전복을 주재료로 해 '전복 어묵'을 선보인다. 오후에는 함평돌머리해수욕장에서 석두어촌계의 특산물인 바지락으로 만든 '바지락 술찜' 시식행사가 열린다. 8월 2일에는 보성 울포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한 석간어촌계의 특산물인 낙지를 주재료로 한 어촌특화음식을 내놓을 예정이다.

어촌특화음식은 지역의 청년세프들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오명진(32) 셰프는 2017년 홍콩세계

요리대회 금메달, 2018년 싱가포르 국제 요리대회 은상 등을 수상한 지역 대표 청년 셰프다. 이봉선(43·동강대 호텔조리영양학부 교수) 셰프, 남예니(여·32) 셰프 등도 참여한다. 이 셰프는 2007년 서울국제요리대회 은상을 비롯해 12년여 간 국제요리대회를 휩쓸고, 각종 요리책을 발간한 바 있으며, 남 셰프는 2006년 제13회 김치축제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관광음식박람회 대통령상 수상한 바 있다. 이들 셰프는 어민들과 함께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 대회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제공하고, 개발한 레시피를 각 어촌계에 증명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심해양정책과장은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로 지역의 청년 셰프들이 남녀노소,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편 음식을 개발해 피서객들에게는 전남 어촌의 맛을 제공하고, 어촌에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행사를 더 확대해 피서객들이 전남 어촌에게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번 남어진담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시민 귀어귀촌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호남 KTX 장성역 정차 확정

상행 2회·하행 2회

목포-용산간 호남고속철(KTX)이 4년 만에 다시 장성역에 정차할 전망이다.

25일 장성군,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호남 KTX 노선(상행 2회·하행 2회)에 장성역 정차를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용산역을 출발한 호남 KTX는 오송-세대전-익산-장성-광주-송정역-목포를 경유하게 된다.

정확한 정차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 추석(9월 12-15) 연휴 이후부터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10월1-31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장성군은 운행 재개 후 이용객 수요에 따라 정차 횟수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장성역 KTX 운행이 중단된 이래 장성군은 총리실-국토교통부-KTX 장성역 정차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KTX 장성역 정차 1만명 생명운동'을 벌여 관계기관에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유두석 장성군수와 손병석 코레일 사장의 면담에서 장성역 정차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정차 시기와 시각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KTX 장성역 정차가 재개되면 주민들과 상무대 군인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전남 관광 할인카드 '남도패스' 가맹점 확대

광주 70곳·전남 140곳으로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남도패스' 할인가맹점이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패스 할인가맹점을 지난해 105곳에서 올해 총 210곳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7월 말까지 숙박, 체험, 맛집, 카페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할인가맹점을 지난해 3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전남도도 연말까지 기존 70곳을 14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남도패스' 카드는 올해 4월 남도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6월말 기준 오프라인 7033장, 온라인 1272장이 판매됐다.

온라인 마케팅과 더불어 현장 홍보·마

케팅 강화를 위해 현재 KTX역(용산, 광주송정, 목포, 여수, 순천)에 집중된 7개 오프라인 판매처를 광주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남도패스' 카드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선불·충전형 결제 카드로, 광주·전남의 숙박, 교통,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 관광 할인을 제공한다.

제휴가맹점 전국 70개 프랜차이즈 260만 매장에서 최대 60% 할인이 가능하다. 전남·광주 주요관광지 숙박, 교통, 레저시설에서도 최대 60% 할인 가능하다.

모바일 코너카드 앱을 설치해 카드등록 후 계좌를 연결하면 별도 비용없이 충전·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할인 정보 등 이용 안내는 남도패스 홈페이지(namdopa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어촌뉴딜 300' 미래 발전전략 목표 신안비치호텔서 토론회

정부의 낙후 어촌 개발 지원사업인 '어촌뉴딜 300'을 통한 어촌 혁신방안과 미래 발전전략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2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전남지역 100여개의 어촌마을에서 주민 250여명이 참석, 어촌뉴딜 300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어촌의 새로운 희망! 어촌뉴딜300'을 주제로 2020년 어촌뉴딜 신규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남도 양근석 해양수산국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연구위원도 각각 '전남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방향', '어촌사회 혁신과 미래지향적인 어촌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정부의 낙후어촌 개발 지원사업인 '어촌뉴딜 300'을 통한 어촌 혁신방안과 미래발전전략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25일 오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중식 목포시장, 박우영 신안군수,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이병로 연합뉴스 부사장, 권준영 해수부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부산·경남, 20조 들여 남해안 새 경제권 육성

2030년까지...전남도 다음달 9일 나주시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남해안 종합발전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전남·부산·경남 등 3개 시·도가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입,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이 담겼다.

전남도는 25일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 주민 열람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

한 종합계획을 9년 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정·변경한 것이다. 전남도는 종합계획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도 담아내면서 향후 '남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기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동력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변화된 발전계획과 세부 조정 내용 등을 공개한다. 애초 166개(24조3900억원)에 달

했던 사업이 93개(20조 4482억원)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다소 조정됐지만 3개 시도 33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발전계획이다. 전남의 경우 16개 시·군이 해당되며 9조 8852억원을 투입,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잡고 이를 위해 ▲동북아 5위의 경제권 진입 ▲남해안을 새로운 국토성장축으로 형성 ▲통합생활권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 3대 목표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해

양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등 4개 분야를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전남도는 주요 사업으로 ▲남해안 테마섬 개발 등 관광벨트 조성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 등 미래형 산업 육성 ▲연륙·연도교, 도로·철도 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결을 위한 SOC 확충 ▲동서해저터널 및 남도2대교 등 영·호남 상생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계획(안)이 현실화되면 2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7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4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감사위, 예방감사 확대 적극 행정 유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부담을 줄여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예방형 감사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예방형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보다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예방감사 확대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광주시 감사위는 예방감사 확대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

다. 예방형 감사는 사전컨설팅·일상감사 등이 있다. 공공감사법을 근거로 가장 해 올 하반기부터 예방형 감사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감사법 제 23조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그 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학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학과	인원		
인문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유아교육과	7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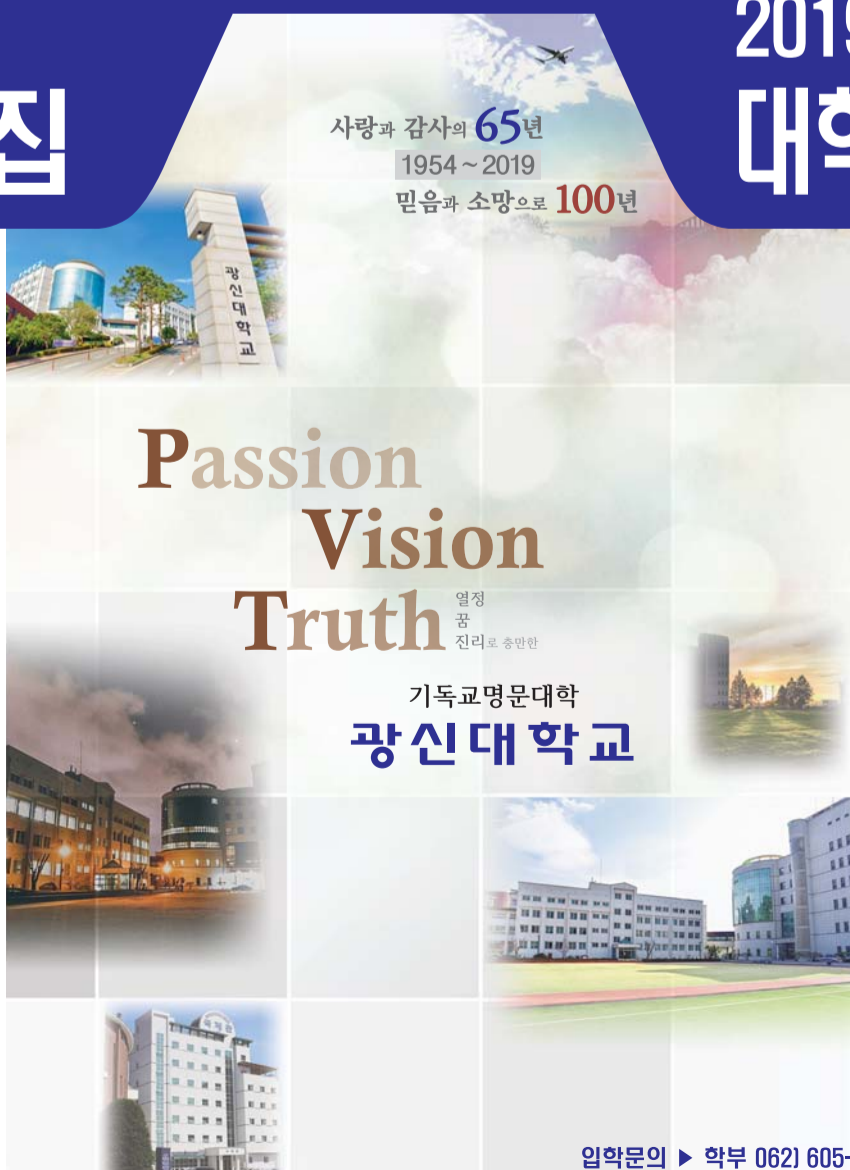
## 대학원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형일: 2019. 8. 20(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